

제주SK FC 5경기 만에 이겼다

18일 포항과 18R 홈경기 2-1 승… 이탈로 ‘역전골’
최근 2무 2패 부진에서 탈출… 현재 리그 8위 유지

제주SK FC가 이탈로의 시원한 시즌 첫골로 4경기 연속 무승에서 벗어났다.

제주SK는 1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6’ 18라운드 홈경기에서 2-1 승리했다.

전반 38분 트란지스카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33분 김신진의 동점골에 이어 후반 37분 이탈로의 역전골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승리로 제주SK는 최근 4경기 연속 무승(2무 2패)에서 탈출했다. 18라운드 기준 승점 23으로 리그 8위를 유지했다.

경기 초반 포항이 불점유율을 장악하면서 제주SK를 계속 압박했고 결국 선제골의 주인공은 포항이었다. 전반 38분 트란지스카가 왼쪽 페널티박스 안에서 과감한 슈팅을 시도했고 제주SK 수비수 유인수를 맞고 굴절되면서 그대로 득점으로



후반 37분 올시즌 첫골로 포항과의 경기를 승리로 이끈 이탈로.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연결됐다.

실점을 허용한 제주SK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후반 시작과 함께 장민규와 오재혁을 빼고 이창민과 최병욱을 교체 투입했다.

지난 3월 8일 2라운드 안양 원정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던 이창민은 성공적인 재활을 마치고 복귀전을

치렀다. 공세의 수위를 높였던 제주SK는 후반 33분 동점골을 터트렸다. 유인수의 침투 패스를 받은 김신진이 오른쪽 페널티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고 강력한 원발 슈팅을 연결하며 포항의 골망을 뒤흔들었다. 김신진의 올 시즌 마수걸이포이자 제주SK 데뷔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제주SK는 후반 37분 역전골을 터트렸다. 코너킥 찬스에서 이창민의 낮고 빠른 킥을 이탈로가 눈스톱 오른발 슈팅으로 환상적인 득점에 성공했다. 이탈로의 올 시즌 첫 득점.

하지만 제주SK에게 큰 변수가 생겼다. 토비아스가 넘어진 상황에서 치료를 받다가 어정원과 충돌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대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다.

이후 포항은 중앙 수비수 전민광까지 최전방 공격수로 올리면서 동점골을 노렸지만 이날 경기는 제주SK의 2-1 역전승으로 막을 내렸다.

제주SK는 21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강원을 불러들여 19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위영석기자



프랑스와 잉글랜드 3-4위 결정전에서 잉글랜드 사카 부카요(오른쪽)가 슈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 북중미 월드컵 3-4위 결정전 잉글랜드, 프랑스 6-4 격파

잉글랜드가 10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프랑스를 물리치고 2026 북중미 월드컵을 3위로 마쳤다.

잉글랜드는 19일(한국시간) 미국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위 결정전에서 전반에만 4골을 넣으며 앞서 나가고 후반 프랑스의

맹추격을 따돌려 6-4로 이겼다.

부카요 사카가 헤트트릭을 작성하며 잉글랜드의 승리에 앞장섰다. 32강전부터 차례로 콩고민주공화국(2-1), 멕시코(3-2), 노르웨이(2-1)를 물리치고 오른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1-2로 역전패한 잉글

랜드는 승리로 대회를 마감하며 60년 만의 우승에 실패한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씻어냈다.

잉글랜드는 프랑스와의 월드컵 맞대결 전적에서 3승 1패로 격차를 벌렸다.

2018년 러시아 대회 우승팀이자 2022년 카타르 대회 준우승팀인 프랑스는 4위로 대회를 마쳤다.

프랑스는 토너먼트에서 스웨덴(3-0), 파라과이(1-0), 모로코(2-0)를 차례로 제압한 뒤 스페인과의 준결승전에서 0-2로 완패했다.

프랑스의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는 멀티골에 도움까지 하나 올리며 대회 공격포인트를 10골 4도움으로 늘렸다.

프랑스를 14년 동안 지휘한 디디에 데샹 감독은 마지막 경기에서 패했지만, 웃으며 그라운드를 떠났다. 그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감독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연합뉴스



18일(한국시간) 열린 LAFC와 LA갤럭시 간 메이저리그사커(MLS) 경기에서 LAFC의 손흥민(왼쪽)이 슈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기다렸던 2026 시즌 마수걸이골

미국프로축구 LA갤럭시 전 1호골… “월드컵 충격 정신적으로 회복”

축구 국가대표팀 ‘캡틴’ 손흥민(LAFC)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마치고 소속팀으로 돌아가서 치른 첫 경기에서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정규리그 시즌 첫 골을 신고했다.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의 디그니티 헬스 스포츠 파크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LA) 갤럭시와의 2026 MLS 정규시즌 16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팀이 2-0으로 앞선 후반 12분 추가 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리그 첫 골이다.

손흥민은 시즌 개막 이후 소속팀 경기로는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에서만 2골을 기록 중이었다.

MLS에서는 2월 개막 이후 득점 없이 도움 9개를 올린 채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했던 그는 조별리그 탈락의 아쉬움을 삼키며 돌아간 소속팀에서 복귀 첫 경기부터 득점포를 가동했다.

손흥민은 월드컵에서 한국이 치른 3경기 모두 출전했으나 무득점으로 침묵한 바있다.

‘엘 트라피코’로 불리는 LA 갤럭시와의 지역 라이벌 매치로 월드컵 휴식기 이후 일정을 재개한 LAFC는 3-0 완승을 거두며 리그 2연승을 수확, 정규시즌 8승 3무 5패로 승점 27을 쌓아 서부 콘퍼런스 3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많은 분이 기대하신 것보다(리그 첫 골이) 좀 늦게 터진 감이 없지

않지만, 걱정은 하지 않았다”면서 “경기력이 더 중요했는데, 오늘 좋은 경기를 하면서 골도 기록하고 팀도 이겼으니 전체적인 분위기에 상당히 도움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월드컵 이후) 한국에 가서 잘 쉬고, 좋은 분들과 시간을 보내며 생일(7월 8일)도 한국에서 보내다 보니 그런 것들로 정신적인 회복을 하고 와서 오늘처럼 좋은 시간을 보내볼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를 대표해서 뛰면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을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사랑하기에 최대한 돌아오고 싶었다”면서 “경기장에서 느끼는 좋은 감정은 정신적인 피로를 잊게 해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코리안타이슨’ 고석현 판정패… UFC 3연승 불발

UFC 3연승에 도전했던 ‘코리안 타이슨’ 고석현(32)이 옥타곤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고석현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 페이컴 센터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웰터급 경기에서 장폴 레보스노야니(미국)에게 3라운드 종료 심판 전원일치 판정패(28-29, 28-29, 28-29)했다.

브라질리안 주짓수(BJJ) 블랙벨트를 보유한 레보스노야니는 초반

부터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고석현을 압박했다.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레보스노야니는 기습적인 길로틴 초크와 집요한 테이크다운으로 흐름을 주도했다.

3라운드 들어 두 선수는 옥타곤 중앙에서 치열한 타격전을 벌이며 명승부를 연출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10 TV소 토포명품(재)	6: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7: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하이라이트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리 좋아좋아 11: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 11:45 까망과 베르의 푸드트럭2(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불 8:50 종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11:00 보석아네 건강 수다	8:20 한글공사 아이아 9:40 부모의 첫 성교육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극한직업 13:25 EBS 평생교육 14:55 나의 두 번째 교과서 15:35 뽀빠리 뽀로로 17:10 페파 피그 18:20 고향민국
12:00 KBS 뉴스 12 13: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캐치 14:00 KBS 뉴스 14:10 보물섬(재) 14:40 굿 굿(재) 15:00 현생리뷰(재) 15:30 1989, 두 번째 불(재) 15:50 고품질 아수다(재) 16:00 시사연결 17:00 KBS 뉴스 5 17:30 탐-는 제주	12:40 영화가 좋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마카오투니 3(재) 16:00 TV 유치원 16:30 세상의 모든 디큐 17:20 스튜디오 K 스페셜	12:00 12 MBC 뉴스 12:25 MBC 네트워크특선 13: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7:10 베베핀 17:30 가족관계증명서(재)	12:00 SBS 12 뉴스 12:45 1년 자두야 6 13:00 투데이(재) 14:00 뉴스브리핑 15:30 고향이 보인다 16:00 토크쇼 17:00 JIBS 저녁뉴스 17:10 시사이슈 결(재)	9:00 KCTV 9N 뉴스 9:30 소릴정대 10:00 로컬여행 외전:제보고 11:30 책 읽어주는 나의 세계 12:30 제주 일도초 뿌리를 찾아서 13:50 어쩌다 어른 15:00 KCTV 15시 뉴스 15:30 우리동네 히어로 시즌 1 16:00 캠퍼지 17:20 네트워킹 전국발굴 18:00 공연에 반하다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우리말 겨루기 20:30 일일연속극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가요무대 22:55 KBS 뉴스라인W 23:35 인생이 영화(재)	18:00 경제콘서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다큐멘터리 3일 21:30 탐자소 23:00 누나 내게 여자가 2(재)	18:05 오늘N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22:50 심야리듬회 6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현타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생활의 달인 22:10 아니 근데 진짜? 23:40 나이트라인	9: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여행가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신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0일

작명·지단 (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 (010-5233-6136)

36년 문서 계약안이 흥하니 중요사안은 다음을 기약하라. 48년 관제구설의 시끄러움이 들린다. 매사에 신중하라. 60년 돈 문제로 처가나 시댁과 다툼이나 원성이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 72년 자식 문제로 고민.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라. 84년 이성관계에서 의견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양보.

37년 마음이 평화로운 저는 인생이 아름답다. 49년 건강이 최우선 해야 합을 잊지 마라. 61년 분실, 도난수가 있으니 문단속 주의. 부부금실 적신호. 73년 업무의 성과가 미약하고 능력은 있어도 주변에서 나를 몰라준다. 85년 친구나 동료와 의견대립이 있으니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라.

38년 자식의 일은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으로 건강을 해하지 마라. 50년 사석에서 한 말이 와전되니 언행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62년 기계고장이나 업무의 하자로 지연이 된다. 74년 집안에 격정이나 근심이 오고 연락이 올 수 있으니 안부전화. 86년 무언가 새롭게 바꿔 보려고 마음이 동요.

39년 산 정상을 밟아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 것이다. 51년 내일을 기약하는 지혜가 필요. 무리수 금지. 63년 활동력이 왕성해지고 분주하다. 도움을 요청하라. 75년 군중심리의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냉철하고 철저한 본인관리가 요구. 87년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40년 강한 추진력이 결과를 얻는다. 밀어붙이는 파워의 승전보가 있다. 52년 매출이 증대되고 거래가 활발하다. 64년 물질적·정신적문제로 갈등이 생긴다. 직업으로 갈등은 불리. 76년 친정의 소식을 접하거나 여행, 외출을 한다. 88년 생각을 조금 바꾼다면 힘든 일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41년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내가 아플수 있다. 53년 자식의 문제로 고민과 걱정을 한다. 과도한 충고는 자제. 65년 학군이 말에서 시작되니 언행에 신중하라. 작은 실수가 큰 후회를 만든다. 77년 이동, 변동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실에 충실하고 내일을 기약하라. 89년 충고는 사람에서 시작됨을 알라.

42년 서두르면 화가 오니 여유가 필요하다. 보증을 보류. 54년 나를 찾는 이가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있으나 초정 모임에 적극 응하라. 66년 남자는 만용은 오히려 독이 되니 부족함을 한탄하지 마라. 78년 주변의 감언이설에 신경을 쓰거나 조심해야 한다. 90년 화를 다스리는 지혜로 먼저 마음을 비우라.

43년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나의 행운이다. 55년 동안이나 투자 문제로 주변 또는 친구와 의견의 나뉘는 것. 67년 평생교육이나 평생학습에 관심도 이익이 된다. 79년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 결과를 가져 오는 지혜가 필요. 91년 남의 일에 간섭 시 구설 또는 내가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44년 주변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긴다. 상대를 배려하며 경청해줄 것. 56년 부인의 배려가 있는가 하면 불화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68년 주어진 일은 마무리를 잘해야 이익이 있다. 80년 카운슬러·간호·항방 분야 종사자는 상사의 칭찬 또는 인정받는다. 92년 돈 문제로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45년 약속 지체 시 신뢰가 떨어진다. 57년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직접 본인이 느껴야 한다. 69년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하는법. 변동은 자제하고 신중해야 할 일이다. 81년 정보활용이 절실하다. 평생교육 현장을 통해 지식 습득이 필요. 93년 마음이 변장하고 이수선하다. 자신을 가꾸는 변화도 중요.

46년 아랫사람에 의해 피해가 오니 신경을 쓰고 주의하라. 58년 물류업이나 유통업은 분주하고 할 일이 늘어난다. 70년 자객증을 한 개성도는 취독하는 해로 경해된다. 82년 능률적인 학습전략이 자격증이나 시험을 유리하게 한다. 94년 친구나 동료에 도움을 주는 일이 생긴다.

47년 지갑 소지품을 분실하니 주의. 내부 소행이 될 수 있다. 59년 자녀에 대한 경사나 막혔던 일이 해소된다. 취업자는 직장소식도 온다. 71년 분위기에 휩쓸리면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을 수가 있다. 83년 축복에 시간이 되도록 나만의 설계 계획이 필요하다. 95년 모임에 참여해도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